

지방대학생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A Qualitative Study on Ego Identity of Local University Students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전임강사 양 성 은**

Division of Public Administration & Social Welfare, Chosun University
Full-Time Lecturer : Yang, Sung-Eun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how the nested social systems affect the identity development of the local university students, and to explore how they integrate externally imposed identities and internally defined ideas of ego. From the protocol writings and personal face-to-face interviews with 87 local university students, the present study found that the participants tended to identify themselves as a university student rather than a "local" university student. They were aware of the social prejudices against local university students. Some participants resisted the stereotypes imposed by the media, which they perceived as overly simplistic and biased labeling, while others accepted those with feelings of frustration, inferiority, and sadness. However, they kept making efforts to overcome social prejudices by means of their affection for the local community. The study highlighted that individual identities were constructed in the systems which the individuals belonged to.

▲주요어(Key Words) : 지방대학생(local university students), 자아정체감(ego identity)

1. 서 론

지난 30여 년간 한국의 대학은 고도성장의 시대가 요구했던 전문인력을 공급하는 사회적 역할을 담당해왔다. 1970년만 해도 26.9%에 불과하던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2004년에 79.7%로 늘어났으며, 특히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고등교육 진학률은 90%를 넘어서고 있다. 대학의 양적증가는 2004년 현재 171개의 4년제 대학과 158개의 전문대학으로 대변되며, 학생수 측면에서도 2004년 현재 4년제 대학에 1,836,649명과 전문대학에 897,589명이 등록되어 있다(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2004). 그러나 이처럼 수적 팽창 일변

도로 달려온 우리나라 대학은 취학인원의 감소, 학력의 저하, 그리고 대학의 재정 악화를 경험하면서 "대학구조개혁"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접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변화의 첨단에 놓인 것이 지방대학이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지방대학이라 함은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포함) 외의 지역에 위치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기술대학, 전문대학 및 수도권 대학의 분교를 말한다. 지방대학은 2004년 현재 전국에 209개가 있으며, 전국 대학의 63.5%에 달한다. 2004년 현재 학생수는 1,679,831명으로 전국 대학생의 61.4%에 이른다(한국교육개발원, 2004). 지방대학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은 최근 대중매체를 통해 보도되는 내용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주요 일간지 및 방송사들은 지방대학의 신입생 급감, 학교재정 곤란, 졸업생의 취업을 저하 등의 내용을 통해 지방대학과 지방대학생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 다루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서, "부도위기 지방대(조선일보, 2005. 6. 27. 3면)," "파산위

* 이 논문은 2005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This study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s from Chosun University, 2005).

** 단독저자 : 양성은 (E-mail : seyang@chosun.ac.kr)

기 지방대학 급증(파이낸셜뉴스, 2004. 6. 27. 1면), "지방대학교 대학원 빈사상태(매일경제, 2004. 11. 11. 1면)," "수도권-지방 취업불균형 심각(SBS 8뉴스, 2004. 9. 17.)," "지방대 취업기회도 왕따(서울신문, 2005. 5. 19. 7면)," "입학만 하면 장학생: 지방대, 눈물겨운 신입생 유치경쟁(조선일보, 2005. 2. 24. 14면)," "서울 지역대학-지방대 수능점수 격차 더 커져(중앙일보, 2004. 10. 25. 12면)" 등의 헤드라인을 접할 수 있다. 이러한 보도내용은 실제 현 상황을 전달하는 한편 사회전반이라고 일컫는 거시체계가 지방대학과 지방대학생을 바라보는 관점, 가치, 태도 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소위 "지방대학의 위기"로 불리는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대학 자체의 노력과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지방대학 개혁은 한국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거칠 수밖에 없는 과정임을 사회 전반이 공감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적 변화 과정에서 간과되고 있는 대상이 바로 지방대학생이라는 점이다. 지방대학의 열악한 환경, 이로 인한 대학구조조정 필요성, 그리고 지방대학생의 낮은 취업률 등 언론에서 연일 보도되는 가시적인 현상 외에 우리 학계는 정작 지방대학생들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관심만을 표명해왔다. 물론 지방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소수의 연구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도 사실이다. 경북지역 대학생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박아청, 2001)나 충청지역 대학생의 통학유형과 생활문화에 관한 연구(조영희, 조명희, 심영, 김대년, 이경희, 2000), 전남지역 대학생의 취업전략에 관한 연구(김민수, 2004; 안영진, 2001), 대구지역 대학생의 실업에 관한 연구(진미석, 2004)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실증주의(positivistic) 인식틀에 입각하여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양적방법론을 채택하거나 또는 기존의 인구통계학적 자료를 이용해 지방대학생에 대한 피상적이고 기술(記述)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치고 있다. 연구참여자인 지방대학생을 타자화하고 객체화시킴으로써 이들의 주관적 의식이나 느낌, 가치관 등에 관한 심층적 정보를 얻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그러므로 지방대학생 본인의 목소리를 통해 이들의 주관적 경험세계를 해석학적(interpretive)으로 고찰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겠다.

지방대학생을 주제로 하는 해석학적 연구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이들의 자아정체감에 대한 탐색이라고 여겨진다. 자아정체감은 자기 존재의 동일성과 독특성에 대한 의식적 감각으로서(Erickson, 1968), 이를 확립하는 것이 청년기의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이다. Erickson은 자아정체감에 대한 인식이 12세 전후의 사춘기부터 시작된다고 보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교육적 환경의 영향으로 대학생 시기에 가장 큰 자아정체감의 변화를 겪게 된다(김희진, 2001; 신정혜, 2003).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으로 인해 고등학교 시절까지 대입준비에만 매진함으로써 이 시기에 자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나 정체성 탐색 기회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대학입시를 위해 억압된 청소년기를 보낸 한국의 청년들은 대학생활을 통해 심리적·성적·인

지적 변화를 경험하며, 새로운 사회적, 직업적 요구에 직면하게 된다(김선애, 연진영, 1989). 이들은 졸업 후 성인기에 부과될 사회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역할을 시도함으로써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 중에 긍정적·부정적 경험들이 자아정체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대학생활은 자아정체감 확립과 혼미라는 양극의 갈등 속에서 자아구조의 재통합을 시도하는 시기라고 할 것이다(김희진, 2001). 청년기의 가장 중요한 과업이 자아정체감 형성이라는 점을 주목할 때, 지방대학생을 이해하기 위해 이들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고찰은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Erickson(1968)은 자아정체감을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였는데, 개인이 속하는 집단에 대한 귀속감을 의미하는 심리사회적 정체감(psychological identity)과 개인이 집단 내에서 타인과는 다른 독립된 고유한 존재로서 갖는 개별적 정체감(individual identity)이 그것이다. 이에 의하면, 지방대학생은 수도권 대학생과 상대적으로 구별되는 지방대학생이라는 독특한 심리사회적 정체감을 형성하게 되고, 이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바탕으로 다시 개인의 고유한 개별정체감을 확립하게 될 것이다.

자아정체감은 생애적으로 미리 짜여져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 발달된다. 개인은 대인관계 속에서 자기를 묘사해 주는 자기참조적 심상들(self-referent images)을 통합하여 자기상(self-image)을 형성한다(신정혜, 2003). 내가 내 자신을 지각하는 주체적 자아(I)와 다른 사람 눈에 비쳐진 객체적 자아(Me)간의 조화를 통해 정체감이 발달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은 타인에 대해 자신이 갖는 일관성과 부합되는 내적동질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McEwen(1996)은 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객체적 자아(Me)의 중요성에 주목하면서,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 체계 또는 맥락(context)의 영향을 강조하였다. Jones(1997: 384) 역시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개인의 정체감은 그 정체감이 형성되는 사회적 맥락과 분리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국내에서는 박아청과 이승국(1999)이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체계의 중요성을 고찰한 바 있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대학생활은 자아정체감 형성에 있어 중요한 전환기이며, 자아정체감은 이들이 소속된 체계의 가치관, 규범, 태도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인 지방대학생들은 수도권과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지방"이라는 체계에 소속되어 있으며, 현재 지방대학의 위기 등을 쟁점화 하는 보다 큰 사회체계의 영향 하에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게 된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자신이 지방대학생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어떻게 주관적 진실로 체험하며, 지방대학생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을 인식하면서 스스로를 어떻게 개념화하는지에 대한 기본적 고찰이 부재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지방대학생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을 어떻게 지각하고, 이러한 사회체계와의 상호작용이 자아

정체감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주체적 자아와 객체적 자아간의 통합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시도하는지 등에 관해 해석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심층적 고찰을 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연구참여자는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소재의 C대학교 재학생이다. C대학은 1946년에 개교한 4년제 종합대학으로서, 현재 재학생 규모는 약 25,000명이고 전임교원은 666명에 달한다.

전체 연구참여자는 87명(여자 64명, 남자 23명)이며, 이들의 연령범위는 만 20세~만 25세였다. 참여자를 동일한 성비(性比)로 모집하지 않은 것은 성차 분석이 본 연구의 목적이 아니므로, 의도적으로 성비를 제한하지 않은데 기인한다. 또한 연구결과를 “일상세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상세계 속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조용환, 1999: 29)”는 논리에 입각하여 연구참여자 모집 과정이 연구자의 통제 보다는 대학생들의 자발성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데 영향을 받았다.

연구참여자는 프로토콜서술(protocol writing)을 위한 집단과 심층적 대면인터뷰(face-to-face interview)를 위한 집단으로 나뉜다. 구체적으로, 연구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해 본 대학의 인문사회과목 대형 강의 2개 분반을 선정하고, 연구목적 및 절차를 설명하였다. 준거적 선택 방법(조용환, 1999: 28)에 따라 광주·전남지역이 고향이고 이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연구에 참여시켜, 지방대학생을 대표하는 전형적 연구참여자들을 선정(typical case selection: Spradly, 1979)하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 선정을 위해 수집한 인구학적 정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대상 가족은 제외하였으며, 평균적으로 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중하(中下)수준으로 추정된다. 일차적으로 선정된 연구참여자 67명(여자 54명, 남자 13명)에게 프로토콜서술을 먼저 실시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심층인터뷰를 위해 연구참여자 20명(여자 10명, 남자 10명)을 새롭게 선정하였다.

2.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두 단계로 이루어졌는데, 먼저 프로토콜서술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층적 대면인터뷰를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단계로 연구참여자들에게 개방형 질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프로토콜서술을 요청하였다. Van Manen (1990: 65)은 프로토콜서술에 대해 설명하면서, 참여자의 생생한 개인적 체험(lived-personal experience)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의 개인적 경험을 직접 글로 적어주세요(Write a direct account of a personal experience you lived through it)”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프로토콜서술은 연구하는 현상에 대한 참여자들의 의견, 추론, 가치판단, 회상 등 인지적 과정

에 중점을 둔 자료를 수집하는데 유용성이 높다. 이러한 방법론적 근거에 입각하여, 지방대학생의 정체감에 대한 참여자들의 반성적 태도(reflective attitude)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두고 프로토콜서술을 실시하였다. 2004년 11월 15일에 개방형 질문지와 연구참여 동의서를 배포한 후 2004년 11월 22일~23일 동안 프로토콜서술문을 수거하였다. 프로토콜서술을 위한 구체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으며, 참여자들이 제출한 프로토콜서술문의 평균 길이는 A4용지 8~9장 분량으로 구성되었다.

- ① “지방대학생”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것을 3가지 적고, 각각에 대해 설명해주시시오.
- ② 자신이 지방대학생이라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 ③ 서울의 대학생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④ 지방대학생을 바라보는 “사회의 눈”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⑤ 지방대를 다니는 것을 후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떠한 경우입니까?
- ⑥ 지방대를 다니기 때문에 좋다고 느끼는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⑦ 졸업 후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시오.

두 번째 자료수집 단계는 심층인터뷰로서 2005년 4월 14일~5월 12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심층인터뷰의 목적은 프로토콜서술문 분석을 통해 얻어진 중심주제들을 프로빙(probing)을 통해 심화시키는데 있으며, 또한 연구참여자들의 정서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을 획득함으로써 인지적 과정에 초점을 둔 프로토콜서술을 보완하고자 실시되었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Creswell(2003: 191-195)이 제시한 질적연구의 자료분석 6단계를 거쳤다. 먼저, 프로토콜서술문을 분류하고 인터뷰를 전사하는 등 수집된 전체 자료를 조직화 하였으며(1단계), 모든 자료를 속독(速讀)함으로써 연구참여자들이 일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공통의 아이디어를 획득하였다(2단계). 이어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분석을 위해 자료를 코딩하였는데, 코딩은 자료를 해체하고 범주화하는 기초적 과정을 말한다(3단계). 코딩을 발전시켜 중심주제(theme)를 도출하고 그 중심주제가 생성된 맥락에 대해 기술하며(4단계), 결과를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제시방식을 결정하였다(5단계). 끝으로 기존문헌과 이론, 연구자 개인의 경험 등을 이용하여 결과를 해석하고, 연구전체가 갖는 궁극적 의미를 제시하였다(6단계).

4. 연구의 신뢰성(credibility)을 위한 검증과정

본 연구는 질적연구의 신뢰성과 엄격성을 높이기 위해 Padgett(1998)이 제안한 몇가지 전략을 사용하였다. 먼저, 자료의 다원화(data triangulation)를 위해 프로토크서술과 심층인터뷰를 병행하였다. 자료다원화를 통해 반복되는 주제에 대한 확신이 가능했으며, 자료간의 불일치된 주제는 새로운 해석을 유도함으로써 결과의 검증능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동료집단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는데, 수도권대학을 나온 본 연구자의 외부자적 시각(etic view)을 견제하기 위해 지방대학을 나온 동료연구자들의 내부자적 시각(emic view)을 반영해 연구결과를 확인하고 비판하는 과정을 거쳤다.

연구참여자들이 자료수집 과정 내내 보여준 진지함과 솔직함 역시 Guba와 Lincoln(1985)이 제안한 질적연구의 신뢰성과 재연가능성(transferability)을 높이는데 이바지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프로토크서술 후의 느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4년 동안 수업 받으면서 이런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말하기 창피했던 질문도 많았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정리도 안 되고 해서 정말 많은 고민도 했지만 나름대로 성실하게 정리해 본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프로토크 #13, 남)

정말 이 글을 써나가는 게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내가 누구인지, 나를 밝히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나로서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질문들을 통해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주어졌다. 이렇게 무언가를 열심히 생각하고 표현했다는 것이 뿌듯하다. (프로토크 #66, 여)

III. 연구결과

1. 일상에서 자각(自覺)되지 않는 지방대학생으로서의 정체감

지방대학생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본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essence)는 아이러니하게도 연구참여자들이 보여준 지방대학생으로서의 자의식 부재라고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이 본인 가장 일반적인 반응은 “평상시에” 자신을 지방대학생이라고 자각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스스로를 지방대학생이라고 생각하는 주관적 귀속감의 결여를 나타냈다.

지방대학생이라는 거에 대해 평상시에 생각해본 적 없는데요. 그런 거 생각 안하는데... 광주사람이 광주에 있는 대학생을 보면 “그냥 대학생인

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죠. (인터뷰 #07, 남)

지방대학생이요? 특별히 그런 거 없는데 (웃음). 제가 좀 둔해가지고, 모르겠는데요. 그런 건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아직 졸업을 안했으니까, 취업이나 그런 것도 확실하지 않고. 그래서 아직까지 몸으로 느껴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인터뷰 #16,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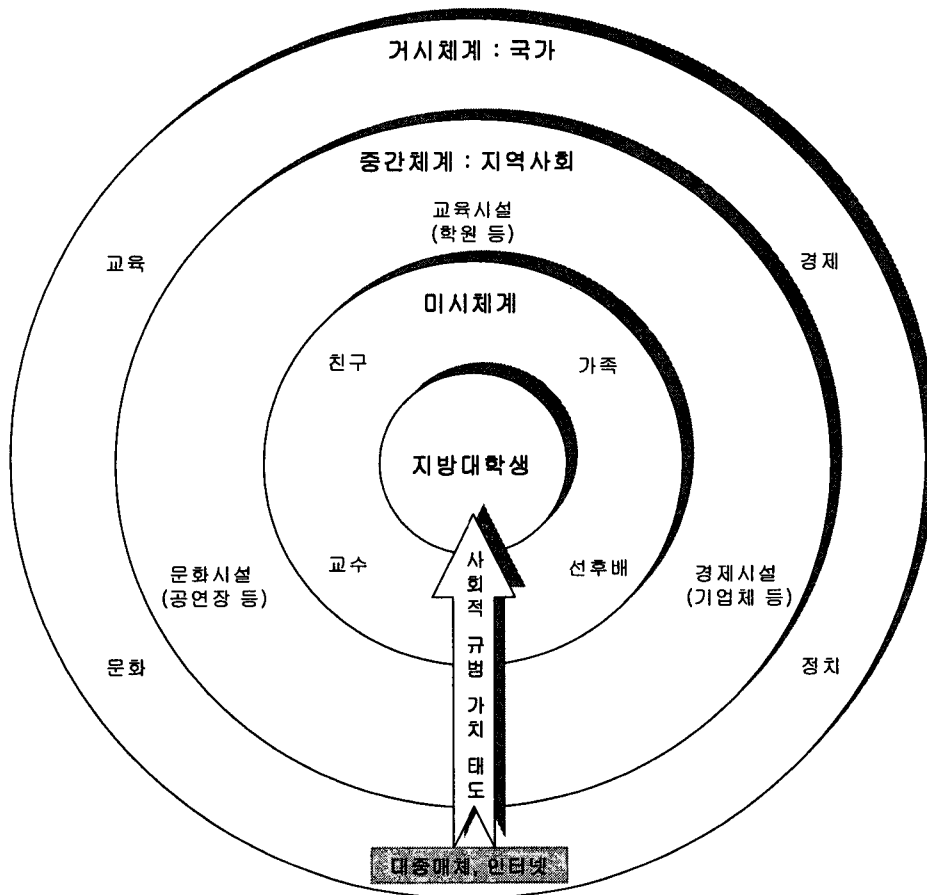
지방대 나와서 서울로 진출하지 않는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광주에서 학교를 다니고 광주에서 취업할 아이들은 수도권대학이니 지방대니 그런 생각이 따로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지방대생이러는데 특별히 의미를 두지는 않아요. 취업 할 때 수도권으로 할 생각도 없고, 제가 사는 고장에서 이렇게 엄마, 아빠 하시던 것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인터뷰 #18, 여)

2. 외부타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방대학생으로 범주화되기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지방대학생이라는 것에 대해 “평상시에”는 특별한 자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고 반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대학생이란 단어에서 연상되는 것을 이야기하라고 했을 때 가장 빈번히 반복되는 것은 “무시, 차별, 소외, 촌스러움, 열등감, 실력부족, 취업난” 등으로 대부분 부정적인 것이었다. 이는 타인의 눈에 비쳐진 객체로서의 자아(Me)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외부타자의 시각을 접할 때마다 평소에 자각하지 않던 지방대학생으로서의 자신을 각성하게 되고, 타인이 자신에게 부여하는 특성들을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인식은 자아점검을 통해 외부 시각에 부합되는 내적동질성 및 내적연속성을 획득하는 자아정체감 형성과정으로 발전된다.

지방대학생으로서의 각성을 유발하는 외부의 주요타자로 본 연구에서 지적된 것은 거시체계의 가치나 태도를 반영하는 대중매체, 지역사회를 벗어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지인(知人)들과의 직접적 상호작용, 그리고 미시체계 안에서 모방과 동일시의 대상이 되는 대학선배 등이었다. 다음 <그림 1>은 이를 도식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먼저, 대중매체의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영향력은 연구참여자들에게 지방대학생이라는 범주를 인지시키고, 이에 대한 소속감을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내면화 시킨다. 대중매체는 연구참여자들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지방대학생에 대한 거시체계 구성원들의 인식을 형성하는 역할도 한다. 대중매체의 속성이 거시체계의 규범, 가치, 태도 등을 수동적으로 반영하는 동시에 이를 적극적으로 형성하여 몰고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들은 대중매체가 비록 의도적인 것은 아닐



<그림 1> 지방대학생의 미시체계, 중간체계, 거시체계

지라도 지방대학생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조장하는데 기여한다고 비판했다.

“지방대생” 그러면 이류나 삼류라고, 또 지방대 나오면 백수라고... 이제 매스컴에서도 그러구. 제일 문제는 매스컴이죠. 신문이나 이런데서 청년실업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자주 접하다 보니까. (인터뷰 #08, 남)

수도권 애들은 지방대 애들이 먹고 놀러 학교 다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TV 같은 것을 봐도 요새 청년실업이 엄청 심각한데, 거기다 “더욱더 심한 것은 지방대생들의 취업 문제다”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런 걸 보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거죠. (인터뷰 #19, 여)

대중매체와 더불어 연구참여자들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요인으로 지적된 것은 지방의 상대적 개념으로 대두되는 “서울”에 거주하는 지인들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다. 지방대학생들은 수도권에 친한 친구 등과 교류하면서 이

들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상대적 지위를 추정하기도 하고, 이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자각하기도 한다.

전에는 잘 몰랐는데, 서울권 학생들이나 그쪽 사람들을 알고 대화를 나눈 후 지방대학생들의 현실에 대해 알게 되었다. 지방대학생을 바라보는 사회의 눈은 한마디로 “냉대한다”는 것이다. 정저지와(井底之蛙)라고 했던가? 광주에서 태어나 광주에서만 26년을 생활해서 그런지 위쪽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 같다. “똑같은 학생인데 뭐가 얼마나 다를까?” 하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지방대학생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각은 무관심이나 무시 그 자체였다. 서울 내에서도 강남, 강북이 차별을 받는 상황인데, 광주 같은 지방학생들은 상대도 안한다고나 할까? (프로토콜 #03, 남)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과 연락이 되서 그 친구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알게 된 후로 “내 자신이 너무 좁은 세상에서 살았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죠. 학원이나 여러 정보, 그리고 학교생활 이외에 서울의 친구들이 즐기는 여가문화까지도 지방대를 다니는 나로서는 부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차이가 심하더라고요. 생각하는 시각 자체도 훨씬 좁은 것 같아요. 아무리 지방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더라도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우위를 선점하고 있다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죠. 대학에 처음 입학했을 때는 못 느꼈지만 졸업반이 되고 취업이 절박한 상황에 놓이니 후회감이 밀려와요. 만약 내가 다시 고 3이 된다면 그때는 진짜 죽을 만큼 열심히 해서 주저하지 않고 당연히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닐 거예요. (프로토콜 #30, 여)

자아정체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세번째 요소는 연구참여자들이 미시체계 안에서 빈번히 상호작용하며 모방과 동일시의 대상이 되는 이들의 대학선배들이다. 졸업한 선배들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성취를 이루었는가 하는 점은 연구참여자로 하여금 자신의 미래상을 예측하게 한다.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선배들의 취업 실패 등을 목격하면서 그 원인이 지방대학생에게 가해지는 차별 때문이라고 귀인(歸因)하였다. 부정적 사건의 원인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로 귀인할수록, 그리고 자신을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선배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긍정적 자아정체감을 획득하는데 어려움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 연구참여자들이 지방대학생이라고 해서 경험하는 열등감, 절망, 분노 등은 특히 취업이라는 과제를 앞둔 졸업반 학생들에게 극적으로 표출되었다.

지방대학이란 이유로 취업에 실패하는 선배들을 볼 땐 지방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괜한 열등감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자꾸 생각납니다. 지방대학생은 단지 그 이유만으로 취업에 실패하고 취업 재수생의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꿈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한다면 지방대학생이란 타이틀은 인생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거라 생각해왔지만, 열등한 교육현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사회적 인식이 떨어지는 상황은 분명합니다. (프로토콜 #08, 남)

지방대생에게 가을은 절망과 분노의 계절이라고 한다. 휴일에도 도서관의 구석진 자리를 떠난 적이 없고 휴학까지 해가며 해외어학연수를 다녀오는 등 몇 년간 취업준비에 매달려도 결과는 늘 "서류탈락"뿐이다. 용케 면접까지 가더라도 합격통보는 아예 기대하지 않는 것이 마음 편하다. 서류면접에서 가장 먼저 탈락시키는 게 거의 지방대생

들이다. 면접을 하지도 않고 대학의 이름만으로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은 너무 차별적이다. (프로토콜 #19, 여)

3. 지방대학생으로 범주화되는 것에 대한 거부 또는 수용

서울과 지방을 양분화 하는 대중매체, 수도권에 거주하는 지인들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게 하는 선배들의 모습 등을 통해 연구참여자들은 "평상시에는 생각해본 적이 없는" 지방대학생으로의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도록 자극받는다. 이러한 외부자극은 지방대학생의 불리함이나 부정적 이미지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지방대학생과 수도권 대학생을 구분하여 범주화하는 시각 자체에 대한 반발과 부인(否認)이고, 둘째는 외부타자의 부정적 편견을 수용하면서 절망과 자아비판 등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먼저, 지방대학생으로 범주화하는 사회의 시각에 대한 반발은 지방대학생들이 서울의 대학생과 다르지 않다는 항변으로 표출되었다.

서울의 대학생들과 다른 점 없습니다!!! 단지 학교가 지방에 있다는 것 뿐! (프로토콜 #02, 남)

어쨌보면 서울도 하나의 지방이 아닐까? 난 지방대학생으로서 수도권 대학생에 비해 부족하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 도대체 이 사회가 지방대학생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왜 운운해야하냐 말이야? (프로토콜 #11, 남)

한편, 외부타자들이 지방대학생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고 믿으며 이러한 편견을 자기평가에 반영하고 수용하는 경우, 연구참여자들은 서러움, 열등감, 피해의식 등의 감정을 토로했다.

지방대에 다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열등의식과 피해의식을 가지며 생활한다. 자신이 다니는 대학에 떳떳하지 못하고, 마지못해 다니는 대학이라는 생각을 하며, 대학 자체에 대해 불평불만을 터뜨리고, 고등학교 성적이 맞춰 수능성적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됐다는 말을 빈번히 내뱉으며, 자신은 원래 여기에 올 위인이 아니었다며 자기위안을 한다. 이는 서울지역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에게서는 잘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프로토콜 #05, 남)

연구참여자들이 지방대학생이란 정체성과 관련되어 느끼는 부정적 감정들은 때때로 "서울의 대학생"에 대한 신비화와 맞물려 강화되기도 한다. 비교대상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과대평가는 긍정적 자아정체감 형성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는데,

일부 연구참여자들이 보여준 서울의 대학생에 대한 이미지는 단편적인 개인의 경험에 근거해 과장되거나 왜곡되어 있기도 하다.

내 경험에 비추어보면, 수도권 대학은 시험기간에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표와 꿈을 향해 공부한다. 그래서인지 1학년부터 자신의 진로를 생각하며 많은 시간을 자기능력 개발을 위해 투자하고, 인간관계 또한 자신의 앞날을 위해 넓혀간다. 하지만 지방대학생들은 일단 놀고 보자는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다. 대학 진학 후부터 책과 거리를 두고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사방팔방 돌아다니며 놀기에 바쁘다. 공부는 시험기간 때 잠깐 하며, 자신의 앞날과 진로에 대한 생각보다는 다음에 어떻게 되겠지 하는 무사안일한 생각과 사고방식을 가지며,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내자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프로토콜 #55, 여)

연구참여자들의 자아정체감은 이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중간체계, 즉 지역사회의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한다. 지방이 서울에 비해 교육시설, 문화시설, 경제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물리적 환경의 차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구참여자들에게 상대적 결핍감을 야기한다. 특히 대학생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이나 정보의 격차는 연구참여자들에게 또 다른 기회의 발달로 여겨지며, 긍정적 자아정체감 형성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이 광주에 없어서 서울로 강의를 받으러 가야하므로 대부분 포기하게 된다. 강의를 접수하는 돈, 숙박비와 교통비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너무 벅차기 때문이다. 서울에는 [취업 대비] 족집게 학원도 많은데 여기는 그렇지 못하다. 지방이라는 이유로 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부족한 것 같다. (프로토콜 #60, 여)

정보에 노출되는 수위가 확연하게 다른 것 같다. 매스미디어나 인터넷의 발달로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우선 서울과 수도권에서 널리 활용돼야 그것이 정보로 인식되고 인터넷에 올라오는 경향이 있다. 처음 시작부터 지방학생들은 정보에 노출되는 시기가 늦을 수밖에 없다. 출발선부터 서울권 학생들과 달라 상대적 평등이 달성되기 어려운 것 같다. (프로토콜 #07, 남)

4. 지방대학생으로서 긍정적 자아정체감의 통합을 위한 노력

연구참여자들은 일상에서 지방대학생으로서의 특별한 자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는 점이 본 연구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중심주제임을 서술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다양한 대중매체나 서울에 거주하는 지인들과의 교류 등을 통해 지방대학생이라는 외부타자의 범주화를 경험하며, 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각성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동일시와 모방의 대상인 대학선배가 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자기상(self-image)의 확립에 영향을 받는다. 지방대학생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경험들은 결코 긍정적이지만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열등감이나 좌절을 경험하기도 한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자아정체감의 혼미 속에서도 긍정적인 자아구조의 통합을 시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한다.

연구참여자들이 긍정적인 정체감을 내면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 전략은 개인의 실천적 노력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편견에 휘둘리기보다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었다. 또한 지방에 대한 수도권의 차별을 오히려 “고향”에 대한 애정과 적극적 소속감으로 변화시키려는 인지적 재구조화도 효과적인 전략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자신의 지역 내에서 진로를 찾으려는 현실적 대안으로 이어지면서 자아정체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대학생이라는 것에 대해 평상시 괜찮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거지,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전 지방대학생이라는 타이틀에 대해 부담 갖지 않거든요.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가 중요한 거 같고... 평소에 친구들이 너무 지방대학생이라는 타이틀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잔하다[속이 언짢고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05, 남)

솔직히 나는 스스로 지방대학생이라는 것에 대해 부끄러움이 없다. 지역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이 다니는 대학에 자신감과 긍지를 갖고 열심히 노력하면 서울로 물리는 현상도 많이 해소될 것이다.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생활하고 배우려고 노력하는가가 중요하다... 내가 다닌 대학에 후회를 한다면 스스로 자신을 편견에 가뒤퍼리는 것 밖에는 안되고, 그러면 나 자신의 발전 또한 없을 것이다. 내가 이 학교를 선택한 이상은 후회하며 깎아내리기 보다는 내 현실적인 여건과 위치를 잘 인식하여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하고 생활하는 게

나에게도, 또 우리 지역에도 더 나은 길인 듯하다... 지방학생들은 자신의 위치가 서울지역학생들보다 더 불리하고 힘든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뒤쳐지지 않기 위해 여러 가지 것들을 더 많이 접하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한다. 지방대학생들은 서울지역 학생들보다 몇 배로 노력하고 취업한 후에도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성실하게 일한다... 서울지역대학을 나와서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대학을 나와서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 훨씬 값지고 보람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프로토콜 #40, 여)

지방대학생으로서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향”이라는 독특한 향토의식과 지역에 대한 애정을 들 수 있다. 지역사회라는 중간체계에 대한 긍정적 소속감은 낯선 거시체계에 유입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내재하고 있으며, 가족과 같은 미시체계 안에서 장기간에 걸쳐 강화된 심리적 특성이다. 연구참여자들이 지닌 “고향”에 대한 애착과 지역 소속감은 수도권 지역에서 차별을 받기 보다는 동일 지역 내에서 직장을 찾겠다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대안과도 연결되어 나타난다.

저는 군대생활 외에는 지금까지 광주를 오래도록 떠나본 적이 없어요. 웬지 몰라도 광주가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대학, 곧 내 고향에서 사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닌다고 생각하면 웬지 삭막하고 정서적으로 불안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가끔씩 하죠. (인터뷰 #02, 남)

우리 가족들은 어느 대학, 어느 과에 지원하려고 강요는 안했지만 부모님은 단 한가지만은 나에게 당부하셨다. 전남을 벗어나지 말라는 것! 나 역시 다른 곳은 갈 생각도 없었다. 난 완벽한 촌놈, 고향과 떨어진 곳에서는 살 수 없는 동물로 태어난 내 천부적인 성격 탓에 전남권 이외에는 생각지 않았다... 나는 나의 지역이 좋다. 내가 사는 지역의 사정권에서 많이 벗어나면 마음이 불안하다. 그러다보니 내 고향과 가까운 지방대학이 좋은 것이다. 정말 나는 고향지상주의자인가 보다. 나는 특별히 수도권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없다. 또 언제 돌아가실지 모를 어머니와 떨어져 산다는 게 싫다. 사실 어머니만 없다면 이렇게까지 지역지상주의자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방대학이라는 것에 대해 후회해 본 적은 없다. 아직까지 같은

지역사회에서는 같은 지역 지방대학생들을 외면하진 않을 것 같다. 내가 지방대학교를 나와서 전남에 있는 회사에 못 들어갈 일은 절대 없다고 본다. (프로토콜 #12, 남)

IV. 논의점

본 연구는 지방대학 위기론의 대두와 함께 대학구조개혁이라는 거시체계의 변화 속에서 지방대학생의 주관적 경험세계를 해석학적으로 고찰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지방대학생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을 어떻게 지각하고, 이러한 사회체계와의 상호작용이 자아정체감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주체적 자아와 객체적 자아간의 통합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시도하는지 등에 관한 탐색적 고찰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광역시 소재의 4년제 대학 한곳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연구로서, 연구결과를 다른 지방대학 전체에 일반화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 아님을 주지하는 바이다.

지방대학생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본 연구의 핵심주제는 연구참여자들이 보여준 지방대학생으로서의 주관적 귀속감의 결여라고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매일의 일상 속에서 자신을 지방대학생이라고 자각하기 보다는 대학생이라는 보다 일반적인 범주의 정체감을 형성한다. 이들이 지방대학생으로 자신을 구분하는 것은 Erickson(1968)의 이론대로 자신과 구별되는 타자를 인식하는 순간에 가능하다. 이러한 인식의 순간은 거시체계의 규범, 가치, 태도 등을 반영하는 대중매체를 통해 야기되는데, 이들은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을 구분 짓는 대중매체에 접하면서 수도권지역 대학생들을 상대적 타자로 인식하게 되고 지방대학생으로서의 자신을 자각한다. 또한 수도권에 거주하는 지인들이나 미시체계 안에서 동일시의 대상이 되는 대학선배와의 상호작용도 지방대학생으로서의 정체감을 강화하는 요인이 된다. 이는 Jones와 McEwen(2000: 406)이 제기한 “자아는 사회, 대학친구집단, 가족과 같은 타인에 의해 규정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문제는 대중매체, 지인, 선배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각된 “지방대학생”이란 범주가 지리적 위치만을 의미하는 중립적 단어가 아니라는 점이다. Tierney(1993)는 개인이 속한 사회적 범주(예: 인종, 성, 사회계층 등)가 그 개인이 속한 맥락 내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떠한 가치로 평가되느냐에 따라 정체감이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McEwen(1996: 213)도 개인을 설명하는 객관적 범주는 그가 속한 체계 내에서 사회적으로 구성되어(socially constructed) 주관적 가치를 갖게 되며, 이는 개인의 정체감 형성을 좌우한다고 보았다. 즉, 체계의 구성원들이 특정 개인이 속한 사회계층, 성, 인종 등의 범주를 어떻게 구성하고 개념화하느냐에 따라 그 개인의 정체감은 다른 형태로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속한 겹겹의 체계

들이 “지방대학생”이란 범주 안에 수도권과 대비되는 경제적, 문화적, 교육적 결핍과 이에 따른 우열, 그리고 사회적 차별을 암암리에 규정한다고 지각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이 지각한 내용이 정확한지 여부를 가리는 것보다는 “사실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결국 사실이다(What we define as real is real its consequences)”라는 Thomas와 Thomas(1928)의 고전적 명제를 받아들이는 것이 본 연구결과를 해석하는데 보다 타당할 것이다.

자신을 둘러싼 외부체계가 규정하는 지방대학생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수용하는 경우 연구참여자들이 느끼는 열등감, 서러움, 절망 등의 정서는 긍정적 자아정체감 형성을 어렵게 할 것이다. 특히 연구참여자들이 지방대학생이기에 경험하는 좌절은 취업이라는 발달과업과 맞물려 극적으로 표출되었다. 류장수(2003)는 지방대학과 수도권대학 졸업생 1,116명을 비교한 결과, 지방대 출신이 첫 일자리를 얻는데 더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체 규모가 더 작은 직장에 취업하고, 더 낮은 임금을 받는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대생들이 실제로 취업현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음을 입증하는 실증적 자료이며, “재경무죄 재향유죄(在京無罪 在鄉有罪, 이병식, 2004: 58)”라는 표현을 실감하게 한다.

한편 지방대학생에 대한 외부체계의 부정적 시각에 대해 반발과 부정을 보인 연구참여자들은 대학생을 지방대학생과 수도권대학생으로 양분하고, 지방대학생이 수도권대학생 보다 열등하리라는 편견을 비판했다. 물론 수도권대학생들의 학력이 지방대학생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다는 증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병식(2004: 61)은 1994년~2001년 동안 대학신입생들의 수능성적을 분석한 결과, 서울지역의 수능시험 평균백분위는 일정수준으로 유지되는 반면 그 밖의 지역은 저하되어 서울지역으로의 우수학생 집중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우수한 학생과 열등한 학생은 지방과 수도권 모두에 존재하며, 개개인의 능력과 자질을 보려는 노력 대신 지나치게 단순한 하나의 범주로 개인의 정체감을 규정하고 평가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대학생들은 자신을 둘러싼 미시체계, 중간체계, 거시체계 안에서 정체감의 혼미를 경험하면서도, 타인의 눈에 비쳐진 개체적 자아(Me)와 스스로가 지각하는 주체적 자아(I)의 긍정적 통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한다. 정체감은 사회로부터 개인에게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획득되기 때문이다(정옥분, 2002). 연구참여자들이 긍정적인 정체감을 내면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 전략은 개인의 실천적 노력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편견에 휘둘리기보다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었다. 또한 지방에 대한 수도권의 차별을 오히려 “고향”에 대한 애정과 적극적 소속감으로 변화시키려는 인지적 재구조화도 효과적인 전략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자신의 지역 내에서 졸업 후의 진로를 찾으려는 실용적 대안으로 이어지면서 자아정체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지역 내에서 취업을 시도하는 대처전략이 얼마나 현실적인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 100대 기업의 91%는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다(시사저널, 2005. 5. 31. 23면). 또한 통계청(2004)이 발표한 “지역별 직종별 취업자 수/비율”을 살펴보면, 대학졸업생들이 선호하는 전문·기술·행정관리직의 비중은 수도권에 높고, 지방의 경우는 대체로 단순노무직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서울지역은 전체 경제인구 중 28.5%가 전문·기술·행정관리직에, 14.6%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한편, 광주광역시는 전문·기술·행정관리직 19.9%, 사무직 13.4%,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직이 31.7%로 나타났다. 전라남도의 경우는 전문·기술·행정관리직 9.3%와 사무직 8.3%에 그치고 있다. 결국 지역경제의 낙후와 경제, 문화, 교육시설 등의 수도권 집중이라는 거시체계의 구조적 문제는 미시체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지방대학생의 개인적 노력을 좌절시킬 가능성이 있다.

결국, 지방대학생의 긍정적 자아정체감 형성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인지적 재구조화나 실천적 노력만으로 가능한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지방대학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교육인적 자원부가 주관하는 “지방대 혁신역량강화(NURI)사업”의 확대 실시, 지방대학 졸업생들의 취업지원을 위한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나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등의 적극적 도입, 다양한 지방균형개발 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거시체계의 대안들이 함께 논의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방대학생들이 자신의 지역에 대한 건강한 소속감과 지역공동체 의식을 확립하는 것이 가능하며, 궁극적으로 긍정적 자아정체감의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접수일 : 2005년 07월 15일

□ 심사일 : 2005년 07월 27일

□ 심사완료일 : 2005년 10월 19일

【참 고 문 헌】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2004). 교육통계연보.
 김민수(2004). 대학생 취업인식실태를 통한 취업전략. **지방발전연구**, 9(1), 435-463.
 김선애·연진영(1989).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형성과 관련 변인. **아동학회지**, 10(2), 45-60.
 김희진(2001). 대학생의 자아정체감이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5, 369-393.
 류장수(2003). 지방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이행 실태와 성과분석. **산업노동연구**, 9(1), 171-196.
 매일경제(2004. 11. 11.). 지방대학교 대학원 빈사상태. 1면.
 박아청(2001). 대학생의 가정과 학교생활의 적응과 대체화와 자

- 아정체감 사이의 인과관계. *아동교육*, 10(1), 161-173.
- 박아청 · 이승국(1999).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의 구조분석. *교육심리학*, 13(4), 113-142.
- 서울신문(2005. 5. 19.). 지방대 취업기회도 왕따. 7면.
- 시사저널(2005. 5. 31.). 수도권 규제 풀면 균형발전위에서 사퇴. 23면.
- 신정혜(2003).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및 내외통제성이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영진(2001). 전남대학교 졸업생의 취업구조와 지역발전. *한국경제지리학회지*, 4(2), 37-56.
- 이병식(2004). 청년실업과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문제. *도시문제*, 39(423), 56-65.
- 정옥분(2002). *아동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조선일보(2005. 2. 24.). 입학만 하면 장학생: 지방대, 눈물겨운 신입생 유치경쟁. 14면.
- 조선일보(2005. 6. 27.). 부도위기 지방대. 3면.
- 조영희 · 조명희 · 심영 · 김대년 · 이경희(2000). 대학문화정착을 위한 대학생의 생활문화비교분석: 지방대학 대학생의 통학유형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9(2), 153-176.
- 조용환(1999). *질적연구: 방법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 중앙일보(2004. 10. 25.). 서울지역대학-지방대 수능점수 격차 더 커져. 12면.
- 진미석(2004). 청년실업의 문제와 대책: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진로교육학회*, 16(2), 1-19.
- 통계청(2004). *경제활동인구조조사*.
- 파이낸셜뉴스(2004. 6. 27.). 파산위기 지방대학 급증. 1면.
- 한국교육개발원(2004).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
- SBS 8뉴스(2004. 9. 17.). 수도권-지방 취업불균형 심각.
- Creswell, J. H.(2003). *Research design: Qualitative, quantitative, and mixed methods approaches(2nd ed)*. Thousand Oak, CA: Sage.
- Erickson, E. H.(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W. W. Norton.
- Guba, E. & Lincoln, Y.(1985). *Naturalistic inquiry*. Newbury Park, CA: Sage.
- Jones, S. R.(1997). Voices of identity and difference: A qualitative exploration of the multiple dimensions of identity development in wome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8(4), 376-385.
- Jones, S. R. & McEwen, M. K.(2000). A conceptual model of multiple dimensions of identity.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41(4), 405-414.
- McEwen, M. K.(1996). New perspectives on identity development. In Komives, S. R. & Woodard Jr, D. B. (Eds.). *Student services: A handbook for the profession* (3rd ed., 188-217). San Francisco: Jossey-Bass.
- Padgett, D. K.(1998). 유태균 역(2001). *사회복지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나남출판.
- Spradley, J. P.(1979). *The ethnographic interview*.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Tierney, W. G.(1993). *Building communities of difference: Higher education in the 21st century*. Westport, MA: Bergin & Garvey.
- Thomas, W. I. & Thomas, D. S.(1928). *The child in America: Behavior problems and programs*. New York: A. A. Knopf.
- Van Manen, M.(1990). *Researching lived experiences: Human science of an action sensitive pedagogy*. New York: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